+

# 전남 '산림자원 산업화' 미래 100년 도약 시동

전남산림研 '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' 준공 200억 투입 산림비즈니스·종자양묘기술센터 등 구축

전남도산림연구원은 지난 8일 '스마 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' 준공식 을 갖고 산림자원 산업화를 위한 미래 1 00년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.

산림바이오 거점사업은 2019년 11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.

이날 준공식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배 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, 윤병태 나주시 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 및 기념사·축사, 바이오기업 과 업무협약식, 테이프커팅과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.

특히 전남산림연구원과 국내 바이오 기업인 ㈜내츄럴엔도텍・엔피케이㈜・ ㈜코씨드바이오팜·데이앤바이오는 지 역 토종 산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, 식 의약 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 하자는 의미로 업무협약을 했다. 협약 에 따라 제품에 필요한 원활한 원료 수 급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.

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세계는 보이지 않는 생물자원 전쟁이 본격화되 고 있다.

결국 국내 자생 산림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 연구가 중요한 상황이 다. 최근 국내 바이오산업이 급격한 성 장 추세에 있으나 국내 바이오산업의 기반인 원료물질의 원활한 대량 공급 플랫폼이 구축되지 못해 대부분 원료를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 림자원으로의 대체와 대량 공급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.

난대수종 등 산림바이오 소재를 활용 한 국내 자생식물의 연구 개발과 대량



증식 기반을 구축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준공으로 전남산 산림 소재의 다양한 제품 개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전남산림연구원 내에 조성된 산림바 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에는 총 200억 원이 투자됐다.

주요 기반 시설은 ▲바이오 소재 원 료 표준화 연구와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산림비즈니스센터 ▲유용 산림자 원 대량증식용 종자저장고 및 조직배양 실을 갖춘 종자양묘기술센터 ▲종자파

종 후 양묘를 위한 자동화시설과 환경 제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온실 ▲어린 묘를 성묘로 대량 증식해서 원료물질을 공급할 생산단지 등이다.

김영록 지사는 "온난대 기후대에 속 하는 전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물 자원의 보물창고"라며 "친환경 청정 먹 거리인 산림자원을 활용, 다양한 가공 식품과 헬스케어 제품 개발 등 국내외 식의약 산업계에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 이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"고 말 /김재정기자

## 행정환경 변화 대응 호남권 의견 수렴

#### 광주시·행안부,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개최

광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광 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호남권 의견 수렴 토 론회를 개최했다.

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'미 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(이하 미래위)가 행정체제 개편 권고 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 견을 직접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.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, 미래위, 광주·전남·전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 편 방안을 모색했다.

지방행정체제는 1995년 민선지방자 치 출범 이후 인구감소·지방소멸, 행정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 을받고있다.

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 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구인 '미래위'를

구성했다. 미래위는 인구·미래·지역개 발·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 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을논의·검토했다.

미래위 검토안에는 ▲광역시·도 통 합 ▲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▲자치단 체 기능 조정 ▲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·협력 활성화 ▲자치 단체 구역 변경 ▲자치계층 재검토 ▲ 읍·면·동 등 하부 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.

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, 범정부 차원 의 전담팀(TF)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 제개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고광완 행정부시장은 "현재 지방행 정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, 인구 감소 등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법이 필요한 상황"이라며 "행정체제 개편에 따른

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 의 행·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"고 말 /박선강기자

## 광주시,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 4년차…내달까지 집중 홍보

광주시는 10일 "투명페트병 별도 분 리배출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시민 인 식을 확산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 는 12월말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"고

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생수·음 료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운 후 라 벨을 떼고 압축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 거함에 배출하거나 투명·반투명 봉투 에 배출하는 제도다.

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 12월25일부 터 우선 시행했으며 단독주택 등은 202 1년 12월25일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.

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 운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옷이나 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인다. /박선강기자

## 한일해협 8개 시·도·현, 유럽 관광시장 '노크'

#### 양국 관광협의회, 영국 국제관광박람회 공동 참가

전남도는 10일 "한·일양국8개시·도 ·현이 한일해협연안 관광상품 개발 및 유럽 관광 시장 확대를 위해 최근 3일 간 2024 영국 국제관광박람회에 공동 참가했다"고 밝혔다.

세계 3대 국제 관광박람회 중 하나인 영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관광 분야 전

문 비즈니스 박람회다. 매년 전 세계 18 0여개국약6만여명이참가한다.

이번 박람회 참가는 지난 7월 일본 야 마구치현에서 열린 한일해협연안 시도 관광협의회 본회의에서 양국 관광자원 개발 및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해 2024년 한일 공동 관광사업으로 의결된 데 따

전남은 롯데jtb여행사 등 110여개 회 사와 상담을 통해 내년 초를 목표로 8 개 시·도·현을 경유하는 여행 상품을 발굴할 계획이다.

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"이번 박 람회는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관광박람 회,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와 함 께 세계 3대 관광박람회로 한일이 공동 참여해 뜻깊다"며 "한일 공동상품 개 발 및 홍보를 위한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됐길기대한다"고말했다. /김재정기자

## '기아챔스필드' 관중석 10년 만에 정비

### 광주시, 12억 투입 1층 1만6천석 의자 교체

올해 통산 12번째 우승을 차지한 KI 중들이 불편을 겪어왔다. 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 언스필드 관중석이 10년 만에 전면 교 체된다.

10일 광주시에 따르면 12억원의 예산 을 투입해 기아챔피언스필드의 노후 관람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.

2014년 개장한 챔피언스필드는 노후

광주시는 1·2층 관중석 의자 2만2천 개 중 1층의 1만6천석을 모두 교체한다. 올해 말 예산을 편성해 내년 프로야구 시즌 개막 이전인 3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. 2층 관중석의 경우 추후 예 산을 편성해 정비할 방침이다.

광주시는 야구장 건립 당시 KIA 구 한 관중석 의자, 테이블 등이 파손돼 관 단과 맺은 운영 협약에 근거해 정비 계 겠다"고 밝혔다.

획(예산)을 마련했다. 협약은 최초 설 치 비용의 10%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광주시가 보수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. 건립 당시 관중석 설치 비용이 26억원이었는데, 현재 보수 비용은 10 % (2억6천만원)를 초과한 12억원이다.

광주시는 안전진단 용역 등을 통해 파손 시설물을 추가 정비하고 낡은 외 벽 등을 도색할 계획이다.

광주시 관계자는 "그동안 시설 보수 를 해왔지만 너무 낡아 교체할 필요성 이 있다"며 "관중들이 편안하게 경기 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힘쓰 /박선강기자



+